

실천적 질서

|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 김상훈 옮김 |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자신이 경험한 인디언 페요테(환각물질)를 통한 다차원 현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학생인 식자識者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식자'가 되기 위해 개인은 물려서지 않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한마디는 모든 수행의 지침 중 하나이기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편집자 주)



식자識者

도제수업 초기에 돈 후앙은 자신의 가르침이 ‘어떻게 하면 식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일찌감치 언명했다. 나는 이 말을 출발점으로 삼겠다. 식자가 되는 것이 실천적인 목표라는 점은 명백하고, 돈 후앙의 정연하고 체계적인 가르침의 모든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 목표를 향해 특화되어 있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실천적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실천상의 목표인 ‘식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실천적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목표인 ‘식자’부터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일단 ‘식자’를 첫 번째 구성단위로 확정하고 나니 다음의 일곱 가지 명제를 이 단위 고유의 구성요소로 확실하게 꼽을 수 있었다. (1) 식자가 되는 것은 배움의 문제다, (2) 식자는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 (3) 식자의 마음은 명료해야 한다, (4) 식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식자는 전사다, (6) 식자가 된다는 것은 끝없는 진행과정이다, (7) 식자에게는 맹우가 있다.

이 일곱 가지 요소는 돈 후앙의 가르침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으며, 그가 보유한 모든 지식의 성격을 규정했다. 돈 후앙의 가르침의 실천적인 목표가 식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모든 가르침에 이 일곱 가지 명제의 특징이 녹아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들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서, 길고 위험한 훈련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터득할 수 있는 하나의 처신 법 내지는 행동양식으로서의 ‘식자’라는 개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식자’란, 행동의 어떤 지침이 아니라 전수받고 있는 지식과 관련된 모든 비일상적

상황을 포괄하는 일련의 원칙이다.

각각의 명제는 다시 그것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는 여러 개념적 요소들로 나누어진다.

돈 후앙이 한 말에 비추어보면 식자란 디아블레로, 즉 흑黑주술사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돈 후앙은 자기 스승이 디아블레로였고 그 또한 과거에는 디아블레로였지만, 주술의 어떤 실천적 측면들에 대해서는 자신은 더 이상 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떻게 하면 식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의 목적이고, 또 그의 지식이 디아블레로라는 존재에 기반 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자와 디아블레로 사이에는 어떤 고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돈 후앙은 이 두 용어를 호환해서 쓴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공산이 크다는 사실은 일곱 개의 명제와 그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식자’ 개념 자체가 디아블레로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이론상으로는 포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식자가 되는 것은 배움의 문제다

이 첫 번째 명제는 오로지 배움만이 식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단호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식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의 최종결과로, 신의 은총이라든지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을 받아 즉각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대비된다. 식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르침의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첫 번째 명제는 다음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1) 식자가 되는 데 필요한 명시적 조건은 없다, (2) 암묵적인 필요조건은 몇 가지 있다, (3) 누가 배움을 통해 식자가 될 수 있는지는 모종의 비인격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

누가 배움을 통해 식자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명시적인 전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론적으로, 그런 길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 모두에게 배움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실제로는 돈 후앙이 스승의 입장에서 자신의 제자를 직접 선발했다는 사실과는 모순된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스승이라도 모종의 암묵적인 필요조건들에 견주어보는 방식으로 제자를 선발했을 것이다. 그런 필요조건의 구체적인 성격은 결코 공식화되는 법이 없다. 돈 후앙은 스승이 제자를 고를 때는 몇 가지 단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을 시사했을 뿐이었다. 돈 후앙이 시사한 단서는 그가 ‘불굴의 의지’라고 부르는 모종의 성격적 자질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배움을 통해 식자가 될지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돈 후앙이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의 자유의지 영역 밖에 존재하는 모종의 비인격적 힘에 맡겨진다. 이 비인격적 힘은 선택받은 인물로 하여금 비범한 행위를 해내게 하거나, 그 인물 주위에 일련의 기묘한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적임자를 지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필요조건이 없다는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은밀한 필요조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사이에서 알력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런 방식을 통해 선발된 인물은 제자가 된다. 돈 후앙은 그런 인물

을 '선택받은 자'를 의미하는 에스코히토escogito라고 불렀다. 그러나 에스코히토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제자가 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모종의 힘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사실 단 하나만으로도 이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는 장차 배움을 통해 보장 될 최소한의 힘을 이미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배움이란 끝없는 탐색의 과정이다. 그리고 최초의 결정을 내린 힘내지는 그와 유사한 힘은, 에스코히토가 배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패배해서 중도탈락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결정은 배움의 어떤 시점에서든지 징조를 통해 현시된다. 같은 맥락에서, 제자 주위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들은 모두 그런 징조로 간주된다.

식자는 불굴의 의지를 지녀야 한다

식자가 불굴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의지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배우고 있는 지식의 경계를 엄격히 지키고 항상 그 안에 머물러서 요구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춘다는 뜻이다. 식자가 자신의 지식의 맥락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행위가 지닌 강제적인 성질을 견뎌내려면 단호한 의지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수행되는 모든 행위의 강제적인 성질과, 그것이 전혀 융통성 없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든 불편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미래의 제자가 유일한 조건으로서 불굴의 의지력을 조금이라도 지닐 것을 은연중에 요구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죽음이 지척에 있다는 생각은 전반적으로
진지한 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극적 효과뿐 아니라
모든 행위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요구된 효율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파멸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일깨운다.

불굴의 의지는 (1) 절제력, (2) 견실한 판단력, (3) 불개변성(不改變性)으로 이뤄져 있다.

식자가 절제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가 수행해야만 하는 대다수의 행위가 통상적인 일상생활의 경계 밖에 있거나 통상적 행동 관에 어긋나는 사안이나 요소를 다루고 있어서, 그에 따른 행동에 나설 때마다 비상한 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소정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타의 행동은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암묵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모든 행위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의무적인 것이므로, 식자는 견실한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판단력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는 것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수행해야 할 모든 행위의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판단을 위한 기준은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가르침의 모든 요소를 통합시키는 데서 나온다. 그런 연유로, 학습이 진전됨에 따라 기준은 늘 변한다. 그와 동시에 이런 기준의 저변에는 당사자가 수행해야 했던 모든 의무적인 행위는 해당 상황 하에서는 사실상 가장 적절한 행위였다는 확신이 언제나 깔려 있었다.

모든 행위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의무적인 것이므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개변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돈 후앙의 지식 전수체계는 너무나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변경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했다.

식자의 마음은 명료해야 한다

마음의 명료함은 방향 감각을 제공해주는 명제다. 모든 행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전수받은 지식 내에서 제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음의 명료함은 단지 방향 감각을 제공해줄 뿐이다. 이 감각은 그 구성요소로서 (1) 길을 찾아 나설 자유, (2) 특정한 목적에 관한 지식, (3) 유연성 등을 통해 선택된 진로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재확인해준다.

사람은 길을 찾아 나설 자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 개변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이 두 생각은 서로 대립하지도, 간섭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길을 찾아 나설 자유란 똑같이 유효하고 이용 가능한 여러 행동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이런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지의 여부이며, 개인적인 호오好惡에 근거한다. 사실, 어떤 길을 선택할 자유는 개인적 의향의 표현을 통해 그 방향성을 띤다.

방향 감각을 일궈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수받은 지식의 맥락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행위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통해서다. 고로 식자는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동인을 각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목적에 조화시킬 수 있도록 명료한 마음을 필요로 한다. 모든 행위에 내포된 특정한 목적에 관한 지식은 수행해야 할 모든 행동의 주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가 이용하는 지침이 된다.

마음의 명료함의 또 한 가지 측면은, 식자는 부여받은 임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르침이 그의 손에 쥐여준 모든 자원을 조합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유연성이라는 요소의 의미이다. 유연성은 식자로 하여금 탄력적인 임기응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게 함으로써 방향 감각을 일궈준다. 식자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이 요소가 빠지면 그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 강제적인 성질로 인해 경직되거나 메마른 느낌을 줄 것이다.

식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식자는 지극히 힘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전방위적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훈련 단계에서 그런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 돈 후앙은 식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투적인 노력이란 (1) 극적(劇)적인 행동력, (2) 효율적인 수행 능력, 그리고 (3)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식자의 길에서 극적 감각이 매우 특별한 요건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극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종류의 노력이 필요해진다. 바꿔 말해서, 식자는 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돈 후앙의 행동을 예로 들자면, 그의 연극적인 행동은 일견 과장된 연기를 좋아하는 그의 개인적 취향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돈 후앙의 극적인 노력은 언제나 단순한 연기 이상의 것이었고, 오히려 어떤 신념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 더 가까웠다. 돈 후앙의 이런 극적인 노력은 그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 그것이 종국적인 행위라는 기묘한 느낌을 부여했다. 그 결과, 돈 후앙이 하는 행위들은 죽음이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 무대 위에서 행해졌다. 식

자가 다루는 물건들의 본질적으로 위험한 성질로 인해, 그가 배움의 과정에서 죽음을 맞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늘 암시되고 있다. 그러니 죽음이 어딜 가나 등장하는 배역이라는 확신이 빚어낸 극적인 노력이 단순한 과잉연기가 아닌 것은 당연하다.

노력은 극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요구한다. 노력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올바르게 배분되고, 적절해야 한다. 죽음이 지척에 있다는 생각은 전반적으로 진지한 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극적 효과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요구된 효율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파멸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일궈낸다.

노력은 도전의 관념도 수반하고 있다. 도전이란 전수받은 지식의 엄연한 울타리 안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고 확인하는 행위이다.

식자는 전사다

식자라는 존재는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이다. 그리고 식자가 전사의 삶을 사는 전사라는 생각은 그에게 정서적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전사의 관념은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1) 식자는 경의를 가져야 한다, (2) 식자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3) 식자는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4) 식자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연유로, 전사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자기수양의 한 형태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이익의 추구를 최소화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 이익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엄정성과는 상충하기 때문이다.

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식자는 자신이 다루는 물건들에 대해 공경의 자세를 견지할 의무가 있다. 모든 것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깊은 경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의를 품는다는 것은 ‘미지’를 대면할 때 자신이 가진 것의 하찮음을 인식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러한 사고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경의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자존감으로까지 확장된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도 ‘미지’만큼이나 미지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지한 경의의 태도는 그러지 않으면 터무니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십상인 이 지식의 전수를 너무나 마땅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전사의 삶에 필수적인 또 하나의 태도는, 두려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세심하게 그 가치를 살피는 자세다. 가장 이상적인 태도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요구된 행위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며, 식자의 삶의 어떤 시점에서 완전히 타파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두려움을 스스로 자각해야 하고, 그 느낌의 존재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줘야 한다. 돈 후앙은 공포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사로서의 식자는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전쟁을 치르는 사내가 깨어 있는 의식의 두 핵심적 측면에 관련된 요소들을 최대한 인식하려면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 두 측면이란 (1) 의도의 인식, (2) 예상되는 변동의 인식이다.

의도의 인식이란, 수행해야 할 행위의 특정한 목적과 그 행위에 대한 자신의 특정한 목적 사이에 개입된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수행해야 할 모든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므로 식자는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해서, 식자는 수행해야 할 모든 행위의 명확

한 목적과, 자신이 그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마음에 품었던 명확한 동기를 항상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식자는 예상되는 변동의 흐름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예상되는 변동의 인식’이란 모든 행위의 특정한 목적과, 그것을 수행하는 자신의 구체적인 동기 사이에 개입된 중요한 변수들을 항상 감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예상되는 변동을 인식하고 있으면 그는 지극히 미묘한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변화에 대한 이런 깊은 인식은 일의 징조나 그 밖의 비일상적 사건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전사의 태도라는 개념의 마지막 측면은 자신감의 필요성이다. 즉, 자신이 수행한 행위의 특정한 목적이야말로 자신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유일하고 타당한 이유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지식의 힘을 차지할 능력을 갖출 수 없다.

식자가 된다는 것은 끝없는 진행과정이다

한 번 식자가 된다고 해서 영원히 식자인 것은 아니다. 지식을 전수 받고 소정의 단계들을 모두 밟았다고 해서 식자가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단계의 역할은 단지 식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식자가 된다는 것은 완수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며, 다음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끝없이 진행되는 과정에 가깝다. (1) 식자가 되기 위한 탐구는 거듭 쇠신되어야 한다, (2) 존재는 영속적이지 않다, (3) 마음이 갖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식자가 되기 위한 탐구가 지속적으로 쇠신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배

움의 길에서 마주치는 네 가지의 상징적인 적—공포, 명료함, 힘, 노화(老花)—의 개념 속에 표현되어 있다. 탐구를 쇠신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의 획득과 유지를 의미한다. 진정한 식자는 식자가 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네 가지 적과 차례로 싸워 이길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탐구를 아무리 성실하게 쇠신해가도, 결국 인간은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직면해야만 한다. 즉, 그는 최후의 상징적 적에게 굴복할 운명에 있는 것이다. 존재는 영속적이지 않다는 관념 말이다.

비영속성이라는 이 부정적 가치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깃든 길’을 따라가야 한다. 마음이 깃든 길이란, 사람은 비영속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다. 가장 마음에 드는 대안을 선택하여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행위에서 만족감을 얻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돈 후앙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깃든 길을 선택하고 그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은유로 그의 모든 지식의 존재 이유를 요약해놓았다. 그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길을 나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하며, 어떤 영구적인 위치에 도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의 지식의 한계 밖에 있다는 것이다. (끝) 

- 이 글은 『돈 후앙의 가르침: 멕시코 야키족의 초월적 지식체계』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Castaneda, Carlos (1925-1998)) | 페루의 카라마르타에서 태어나 1951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1959년에 UCLA에 입학하여 필드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인디언 보호구역의 현지인들과 친교를 쌓으며 샤머니즘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얻었고, 그 결과를 리포트로 제출하여

격찬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돈 후앙 시리즈'의 시발점이 되었다. 1968년에 출간된 『돈 후앙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1998년까지 총 열두 권의 체험기 및 수행기를 발표했다.(마지막 저서는 사후인 1999년에 출간되었으나 사망 이전에 이미 완성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자 | **김상훈** | 서울 출생으로 필명은 강수백이다. 번역가이자 SF 평론가이며 시공사 그리폰북스와 열린책들 경계소설 시리즈, 행복한책읽기 SF 총서, 현대문학 필립 K. 딕 걸작선 및 미래의 문학 시리즈의 기획 등을 담당했다. 주요 번역 작품으로는 로저 젤라즈니의 『신들의 사회』와 『전도서에 바치는 장미』, 조 홀드먼의 『영원한 전쟁』, 로버트 홀드스톡의 『미사과의 숲』, 크리스토퍼 프리스트의 『매혹』, 필립 K. 딕의 『유빅』, 스타니스와프 렘의 『솔라리스』, 그렉 이건의 『퀵런틴』, 콜린 윌슨의 『정신 기생체』, 새뮤얼 딜레이니의 『바벨-17』, 테드 창외 『당신 인생의 이야기』와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돈 후앙 3부작' 등이 있다.

돈 후앙의 가르침 멕시코 야키족의 초월적 지식체계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지음 | 김상훈 옮김 | 출판사 정신세계사 |
정가 15,000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페루 태생 미국인 인류학자로서, 1968년에 출간된 『돈 후앙의 가르침』을 필두로 북중미 인디언 부족의 주술 체험을 다룬 일련의 저작을 발표하여 타임지의 커버스토리로 실리는 등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는 UCLA의 인류학 대학원생이었던 1960년경에 '돈 후앙 마투스'라는 멕시코 야키 족 사면을 만난 이후 그의 제자가 되어 비밀상적 의식상태를 수시로 체험했고, 그로써 알게 된 물질문명 정반대편의 지식체계를 서정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수기의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그 진위에 대한 열띤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카스타네다에 따르면, 돈 후앙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신랄한 유머와 냉철한 지성을 겸비한 현대인이었고 자신은 돈 후앙으로부터 고대로부터 비밀리에 이어져 내려온 초월적 지식체계를 전수받았다고 한다. 카스타네다가 발표한 돈 후앙 시리즈(총 12권)는 전 세계 17개 언어로 번역되며 적어도 8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이 책은 그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저작으로서, 북중미 선주민들이 사머니즘 의식에 주로 사용했던 환각식물들에 의한 초월적 의식체험과 그에 관한 돈 후앙의 해석과 지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